



# 원자재와 중국, 동전의 양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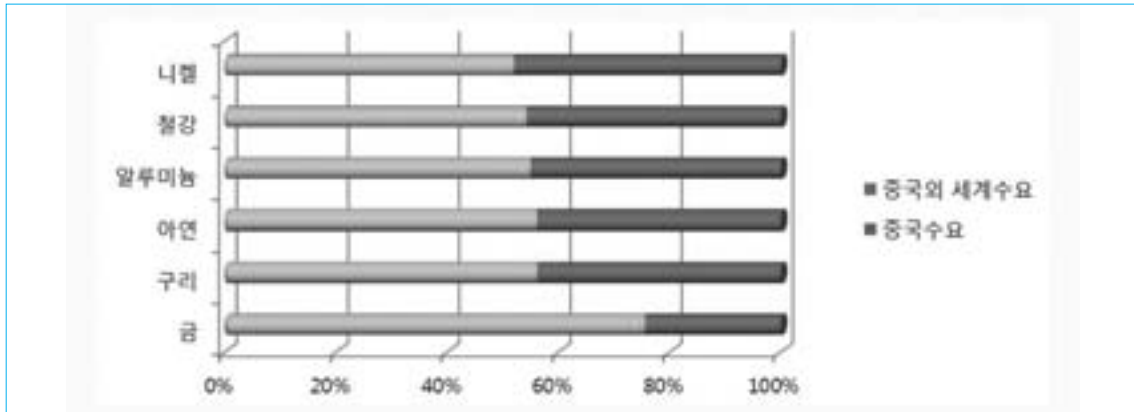
김현희 원켄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통해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오르는 '슈퍼 사이클'(super cycle)이 끝나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이후 급격하게 올랐다. 다우존스-UBS 상품지수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유와 금은 7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을 화두로 올렸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은 하향세로 내려서며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사이클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이다. 원자재 가격은 우리 설비자재 가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원자재와 중국경제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설비 자재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 (2013년 7월 ~ 2013년 8월 자재 동향)

<p><b>강관 및 관련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에 단가 인상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제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하되어 거래 이루어짐</li> <li>- 하반기 역시 경제 여건 상 단가 인상은 어려운 전망</li> <li>- 현장의 구체적 수요에 따라 각 제조사 별로 단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li> </ul>
<p><b>동관 및 관련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동LME 시세는 75원 인하된 8,212원으로 확정</li> <li>- 국제 동LME 시세는 톤당 6,719~6,995달러 선에서 거래 중</li> <li>- 거래 시세는 6월말~7월초 · 중반을 지나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li> <li>- 미국 및 중국의 경기지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자재에 가격에 반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임</li> <li>- 동관은 7월 4주 현재 킬로그램 당 110~130원 인하 상태이나 7월말까지의 국제 거래 금액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 있음</li> </ul>
<p><b>STS관 및 관련 제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STS관 BASE 유통 가격, 동결 확정. 8월은 동결 또는 약보합세 전망</li> <li>- 국제 시장에서 니켈은 톤당 13,160~13,980달러로 거래됨</li> <li>- STS관은 동관 시세와 유사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강관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구체적 수요 물량과 제조사에 따라 단가의 추가 인하 가능</li> </ul>
<p><b>기타 제품 및 구매 포인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앵글, 채널은 단가 동결 또는 약보합세 전망</li> <li>- H-BEAM은 단가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전망</li> <li>- 강관 및 STS관 부속류는 소폭 인하 전망</li> <li>- 중국 경기 하강으로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우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분간 구체적인 단가 소요 물량 위주의 구매 전략이 유효함</li> </ul>

\* 전세계 원자재 수요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



(자료 : 블룸버그통신, 정리 : 원컨네트웍스, 2013년 7월)

중국을 일컬어 원자재의 블랙홀이라고들 말한다. 최근에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왔다. 지난 달 블룸버그와 금융투자업계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원자재 수요의 33%가량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를 보면 이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스테인레스강 제품의 주요 원료인 니켈 수요의 47.7%를 비롯하여 철강 수요의 45.7%, 알루미늄 수요의 44.8%가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이 세계 주요 원자재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원자재 시장은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심화되는 중국 경기 하강이 원자재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원자재 가격 나아가서 우리 설비자재 가격 전망의 시금석이 된다. 현재는 중국 제조업 부진이 원자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6월 수출 규모는 전달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당장의 경기 부양보다는 개혁 및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원자재 가격 하락의 이유 중 하나다. 세계 최대 공매도 헤지펀드 키니코스의 짐 체이노스 회장

은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재임 중 족적을 남기기 위해 대규모 건설에 나서는 것을 에디피스 콤플렉스로 설명하며 이처럼 거대 구조물 콤플렉스에 빠진 중국이 경제적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고속성장을 위해 다리·항만·초고층 빌딩 건설에 올인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이러한 중국 부동산 시장 붕괴가 원자재 가격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여러 이유로 보건대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설비 건설 가족들은 이러한 원자재 시장을 멀리 그리고 넓게 보면서 설비자재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 원컨네트웍스 사업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삼성그룹 디자인연구소 및 UCLA Extension 수료(멀티미디어 부문)

- 삼성화재 홍보, 시장개발, 인터넷 사업 담당(사보, 사장단 연설문, 방송PD, 보도자료, 인터넷 기획, 전국 애니카랜덤망 구축 등 담당)